



미래설계를 위한

# 행복 knowhow



# 10

OCTOBER 2015  
vol.10  
MONTHLY MAGAZINE

삶의  
모든 움직임은  
행복을 향해  
가는 것이다


표지 작가소개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해를 품은 달〉 〈타짜〉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BI〉

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문화예술학과 초빙교수

사. 한국 미술 협회 이사, 한국 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캘리그래피마  
'행복론' 중에서  
이상현  쓰다.

# 내 삶의 속도는 얼마인가요?



What is  
the speed of  
my life?

## 어부가 지금 행복한 이유

휴가차 여행을 온 한 사업가가 바닷가에서 한가롭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허름한 차림의 어부를 보았다. 어부는 하루 먹을 식량을 바다에서 구해 가족들과 나눠 먹는다고 말했다. 사업가는 어부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소. 일단 큰 그물을 준비하시오. 아침 일찍 바닷가에 나가 가능한 한 많은 고기를 잡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오. 그렇게 번 돈으로 작은 양식장을 하나 인수하시오. 양식업은 당신을 큰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부는 사업가에게 묻는다. “부자가 되면 뭐가 좋지요?”

사업가는 어부를 비웃으며 말한다.

“부자가 되면 당신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줄 수 있을 것 아니오. 게다가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 수익만으로도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오”

어부는 또 묻는다. “편안한 노후라고요?”

사업가는 말한다. “바로 그것이오. 당신은 사랑하는 아내와 이런 한적한 바닷가에 집을 짓고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며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오.”

어부는 웃으며 말한다. “바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노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 바쁜 꿀벌은 행복할 틈도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한가로운 일상'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한가롭다는 말에 '게으르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한가할 시간에 공부나 해'라는 말을 우리는 학창시절에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어른이 되어서도 '한가할 틈'을 갖는 것은 마치 죄악처럼 느껴졌다.  
 아침형 인간이 각광 받던 시절, 아침잠이 많은 사람들은 이유 없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도 없다'는 말이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바쁜 꿀벌은 행복할 틈도 없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바쁜 꿀벌이 되어 오늘도 열심히 꿀을 모을 뿐이다.  
 삶의 목적과 방향은 상관없이 일 자체가 절대 가치와 기준이 되어버린 지금, 한눈 팔기,  
 빈둥거리기, 어슬렁거리기, 심심하기, 느긋하게 쉬기는 성공적인 인생을 방해하는  
 '게으름'의 다름 아닌 말이 되었다.

### 당신에게는 인생의 나침반과 지도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속도에 많은 것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자기는 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한 번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만 있으면 된다. 가는 길 중간에 방향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가야 할 곳을 알기에 당황할 것도 방향할 것도 없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면, 혹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헛수고다. 방향을 잘 모르면 잠깐 멈추어야 한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 방향인지, 나침반과 지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가려던 방향과 비슷하다면 조금 돌아서 가면 된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길이라면 전면  
 재수정을 해야 한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왔다면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하므로 시간도  
 물질도 낭비를 감수해야 한다.  
 행복을 다시 찾고 싶다면 우리는 속도가 아닌 방향을 찾아야 한다.

### 걱정에서 벗어나 삶의 여정을 즐겨라

만약 당신이 인생의 속도가 아닌 방향을 선택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여정을 즐기는 것이다.  
 베스트셀러 저자 공병호는 그의 저서 '공병호의 초콜릿'에서 "시속 150km로 달린다면  
 아스팔트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시속 60km로 줄이면 길가에 핀 들국화도 같이 탄  
 가족들도 다 보일 것이다. 인생의 속도를 줄이면 작은 행복들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여정을 즐기기 위해서는 실체 없는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 코넬대 교수가 2004년부터 진행한  
 '인류 유산 프로젝트'에서 65세 이상 총 1,500명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가 던진 질문들 중 하나는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점은 무엇입니까?"였다. 불륜이나 알코올 중독, 사업 실패 등을 예상했지만 가장 많은 답변은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였다. 걱정을 버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은  
 어찌면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지름길인지도 모른다.

### 가던 길을 멈추고 노을진 석양을 바라보자

'인생의 속도를 늦춰라'의 저자 리처드 칼슨은 미래 계획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  
 "사실 계획을 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또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현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미래만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에서 마음이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  
 우리에게 삶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빠르기를 조금만 낮춰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캐나다의 작가 어니 켈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 쓰여진 문구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생각을 바꿔라. 가던 길을 멈추고 노을진 석양을 바라보라. 감탄하기에 가장 적당한  
 순간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이다. 나태가 아닌 창조적 게으름을 피워라.  
 느낌과 여유를 누리다보면 정말 부지런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도 함께 생긴다."



#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10월호 vol.10  
MONTHLY MAGAZINE, OCTOBER 2015



## 08 행복을 주는 사람 | 김명해 씨

스무 살 청년보다 더 청춘인 여든 두 살의 택배기사 김명해 씨. 장학관 출신으로 대학 강단에 서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던 그가 지하철로 향하지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거추장스러운 체면을 던져버렸더니 건강한 신체, 에너지 가득한 청춘의 마음, 인생의 행복이 돌아왔다.



## 28 연금포커스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준비 상황과 시사점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사회 주역들이 한꺼번에 퇴장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의 현주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조명해보자.



## 34 경제이슈 | 구조적 및 순환적 요인으로 살펴본 2016년 한국경제

올해 글로벌 경제는 선진국 경기회복과 신흥국 경기둔화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원만한 회복세에 비해 중국의 경기둔화와 원자재 가격 약세로 신흥국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내수 부진,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내년에도 한국경제는 2%대 중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한국경제를 전망해 본다.



## 38 부동산 이슈 | 정부 주거안정대책, 과연 효과는?

지난 9월 2일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계속되는 전세공급 부족, 가속화 되는 월세 전환 현상 등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번 대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정부의 주거안정대책 내용과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 OPENING

- 02 행복을 위한 질문  
내 삶의 속도는 얼마인가요?

### INTERVIEW

- 08 행복을 주는 사람  
여든 두 살, 청춘의 꽃을 피우다

### INFO GRAPHY

-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개인형 IRP 시장

### 행복미래설계

- 14 H씨의 행복설계  
미래 지출액 우선 조정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
- 18 지식 플라자-세무  
자산가치 하락기,  
증여에는 골든타임
- 20 지식 플라자-상품소개  
연금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는  
중신보험
- 22 Do! Dream  
하루면 충분!  
클래스가 다른 '원데이 클래스'
- 24 Anti aging  
10년 더 젊어지는 바른 자세
- 26 Alone, together  
이웃과 잘 지내는 법

### 연금이슈포커스

- 28 연금 포커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준비 상황과 시사점
- 34 경제 이슈  
구조적 및 순환적 요인으로  
살펴본 2016년 한국경제
- 38 부동산 이슈  
정부 주거안정대책,  
과연 효과는?

### GLOBAL

- 42 지구인 이야기  
얼리어답터 영국의 시니어들

### FUTURE

- 44 은퇴, 버킷리스트  
짜릿한 스릴! 스카이다이빙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10월호 vol.10 (통권 10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록번호 영등포, 리00424 등록일 2015.01.27 제호 행복Knowhow 간행 월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발행일 2015년 10월 7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김상환 연구위원, 박지홍 연구원, KEB하나은행 | 이종면 팀장, 최호재 팀장, 김홍균 수석전문역, 하나금융투자 | 이정철 실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세라 및 기획 특커뮤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택배기사 김명해 씨

## 여든 두 살, 청춘의 꽃을 피우다

스무 살 청년보다 더 청춘인 여든 두 살의 택배기사 김명해 씨. 장학관 출신으로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던 그가 지하철로 향한지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거추장스러운 체면을 던져버렸더니 건강한 신체, 에너지 가득한 청춘의 마음, 인생의 행복이 돌아왔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뜻 한다  
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예순 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사무엘 울먼 「청춘」 중에서

사무엘 울먼의 '청춘'이라는 시를 좋아한다는 지하철 택배기사 김명해 씨. 시처럼 도전, 용기, 희망을 갖고 살면 그게 바로 청춘이라며 여든 두 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한 에너지가 넘쳐난다.

98년 장학관 은퇴 후 일흔두 살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그만둔 후에는 그도 평범한 은퇴 생활을 해왔다.

“집에서 막상 놀다보니 답답하더라고요. 살이 찌서 몸무게는 지금보다 10kg정도가 더 나갔

어요. 운동으로는 살을 빼는 게 한계가 있었죠. 그러던 중 구청 '시니어코너'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침 지하철 택배가 인연이 닿았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활동할 수 있고, 몸도 움직일 수 있는 데다 용돈까지 챙길 수 있어 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처음 지하철 택배 일을 시작했을 때엔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더 난리였다.

“집사람, 자식들, 친구들도 모두 반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 지하철 택배 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남한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몸을 움직이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용돈까지 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하철 택배 일을 시작한 후 무려 몸무게가 10kg이나 줄었다. 덤으로 밥맛도 좋아지고, 밤에는 잠도 잘 자게 됐다. 아프던 무릎도 좋아지는 등 체력이 훨씬 튼튼해졌다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 체면으로부터 자유롭다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직 생활 중에는 곤충학 분야에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그였다. 장학관 은퇴 후에는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소위 체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지게를 지고, 리어카 끄는 일도 했어요. 그런 경험이 일상이었기에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라는 생각은 해 본 적 없어요.”

학창시절 6.25 전쟁을 경험하기도 했고, 서울로 대학입학 후에는 어려운 형편에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한다. 가정교사부터 태권도 사범, 가방에 치약, 칫솔, 바늘 등을 넣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팔기까지 했다.

“체면 따지느라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못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것이 사는 이치

즐거워서 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쉽지 않은 일이 지하철 택배일이다. 지하철에 깜박 물건을 놓고 내려 의뢰 물건을 분실할뻔한 적도 있었다.

“가끔 손님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면박을 주거나 버릇없이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마다 그는 훌훌 털어버린단다. 잠깐 “미안합니다”하고 고개 숙이면 될 것을 뭇 하러 갈등을 만드느냐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게 사는 이치라고 말한다.

“과거 대학시절 은사님께서 강조했던 말을 아직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놓았어요. 사람과 언쟁하지 말고, 토론을 하라고 하셨죠. 서로 자기가 옳다며 언쟁을 한들 결론이 없어요. 남는 것은 상처뿐이죠. 가끔 TV에서 언쟁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은사님의 얘기가 떠올라요. 언쟁보다는 토론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제일 즐거운 것은 매일 즐거운 것

“하루에 4~5만원 생기는 용돈으로 저녁에 들어갈 때 5명의 손주들에게 간식사주는 재미가 쏠쏠해요. 둘러 앉아 맛있게 간식을 먹는 손주들을 보면 이게 행복이구나 싶죠. 행복이 뭐 별 것 있겠어요.” 지하철 택배로 손주 간식 챙기는 재미에 푹 빠진 김명해 씨. 제일 즐거운 것은 매일 즐거운 것이라며 오늘 즐거우니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한다. “사는 게 참 별거 없어요.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그때마다 그는 인생 후배들에게 문제를 극복하기보다 돌파하라고 말한다. 체면과 상관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고 나가는 힘. 그거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는 어떻게든 다 해결되는 것 같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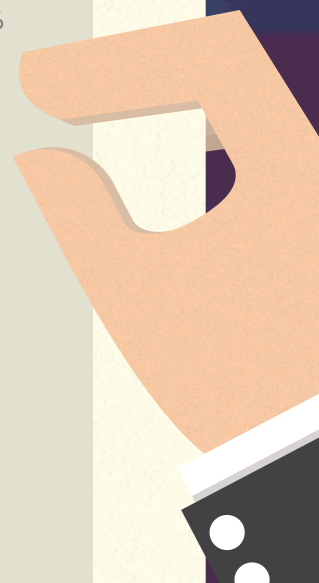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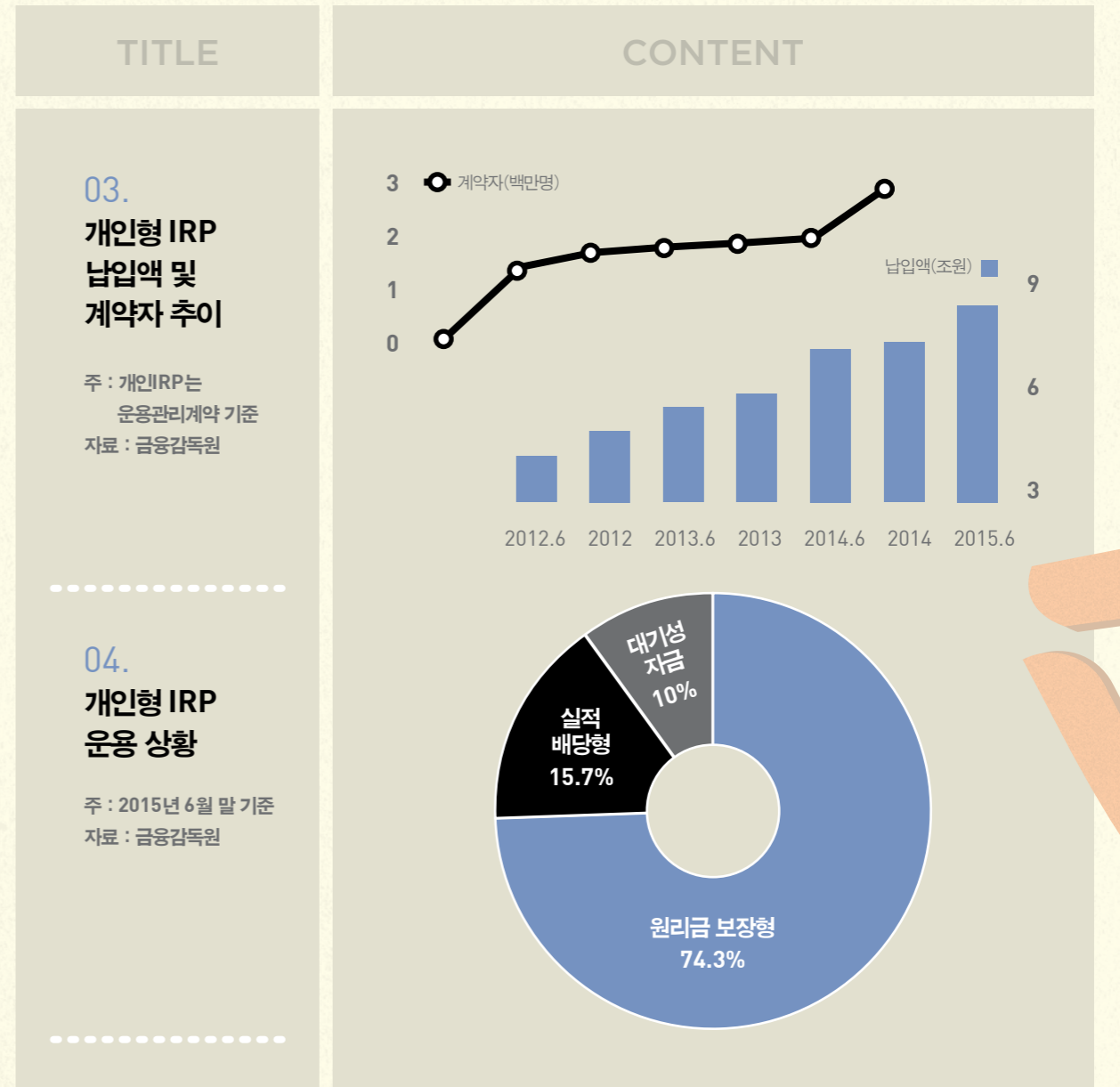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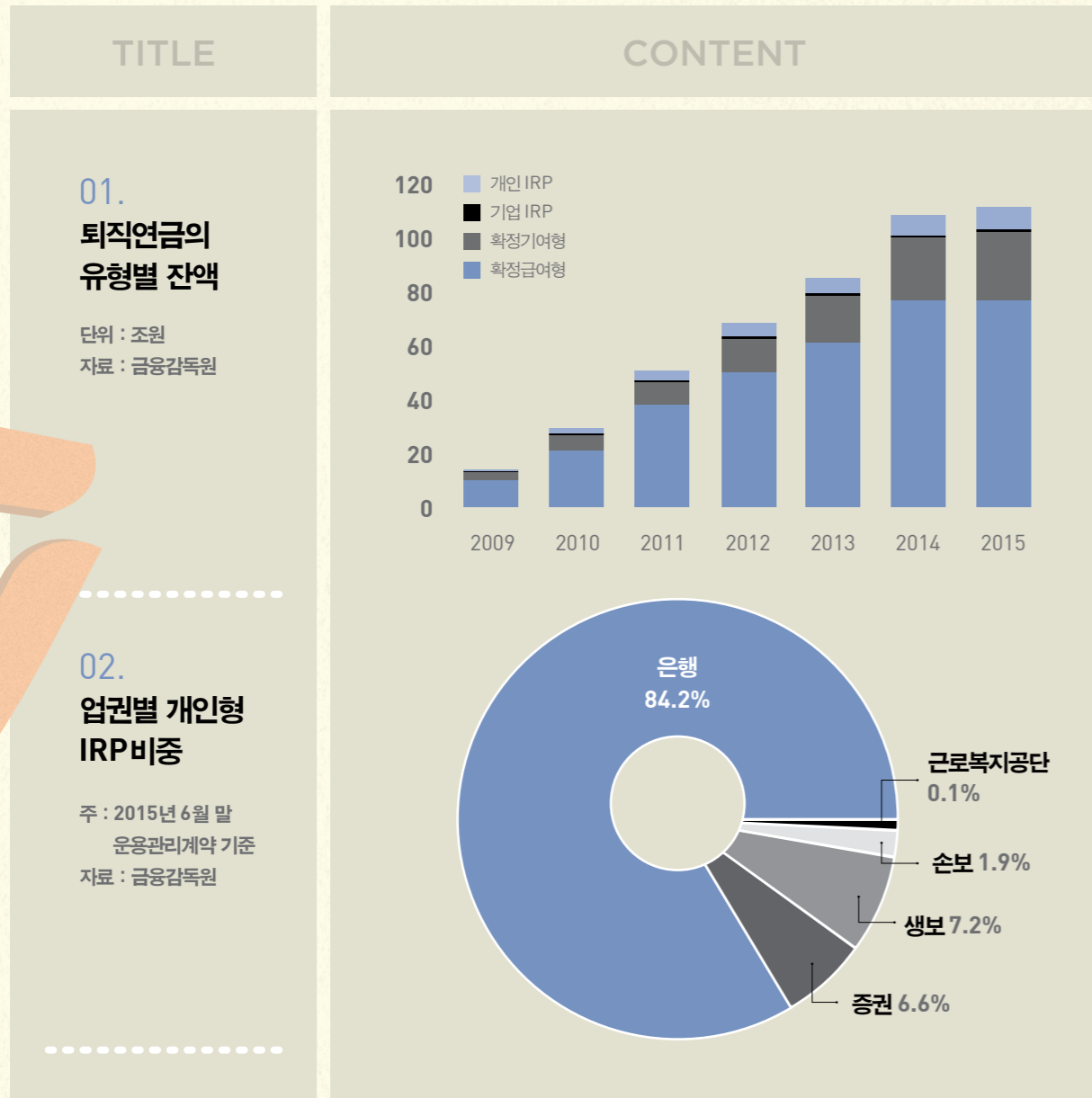
### 자격증으로 은퇴 준비해야

택배일 외에도 그는 가끔 지금까지의 경험을 소재삼아 구청 등에서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강연도 한다. 그때 마다 강조하는 것이 '자격증'이다. 은퇴 전에 주택관리사, 요리사 자격증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자격증을 따 놓으면 또 다른 기회들이 생겨 훨씬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나이 들면 겸손해져야 해요. 또 나이를 따지기 보다는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 용기, 도전력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든 두 살인 지금이 바로 청춘의 시기인 거죠. 한결같이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김명해 씨.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지하철 택배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계획이며, 시니어태권도클럽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열정을 내비쳤다.

# 개인형 IRP시장

개인형 IRP시장이 추가 세제혜택이 주어지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 미래 지출액 우선 조정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

회사원 H씨(만 48세)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월 7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으며,

보유 자산도 적지 않다. 다만 자녀들의 교육비,

미래 자녀들의 결혼비용 등에서 노후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 H씨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은 무엇일까.



## 보유자산 및 소득은 많은 편이나

### 향후 자녀들에게 들어갈 비용으로 인해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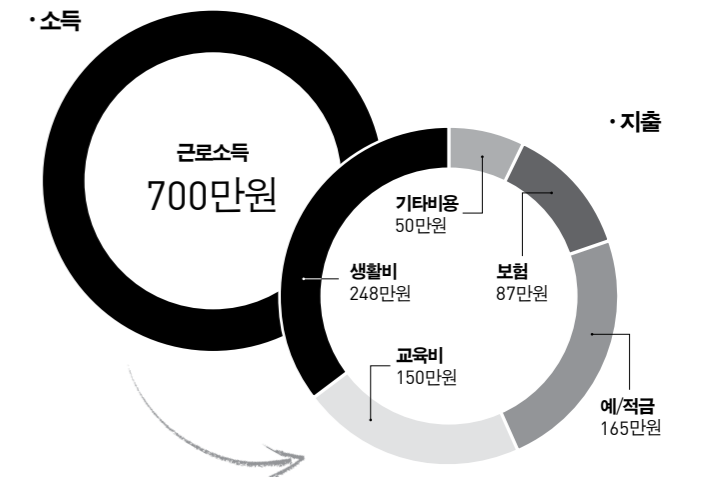
회사원인 H씨(만 48세)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고등학교 3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현재 H씨는 부동산 자산으로 약 4억 7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으로는 예/적금 6,600만원, 펀드 2억 1,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으로 월 7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는 반면 지출은 생활비 248만원, 교육비 150만원, 보험 87만원(연금보험 납입 포함), 예/적금 165만원, 기타비용 50만원이 있다.

H씨는 근로소득이 높은 편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많아 현재 생활은 물론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자녀들의 교육비(1인당 1억원 예상)과 미래 자녀들의 결혼비용(1인당 2억원 예상), 자녀 상속, 다소 부족했다고 느껴지는 노후 준비 등을 생각하면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의 운용에 고민이 생긴다.

####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4억 7,000만 원
	예/적금	6,600만 원
	펀드	2억 1,100만 원
· 부채	-	-
· 순자산		7억 4,700만 원



## 60세에 은퇴할 예정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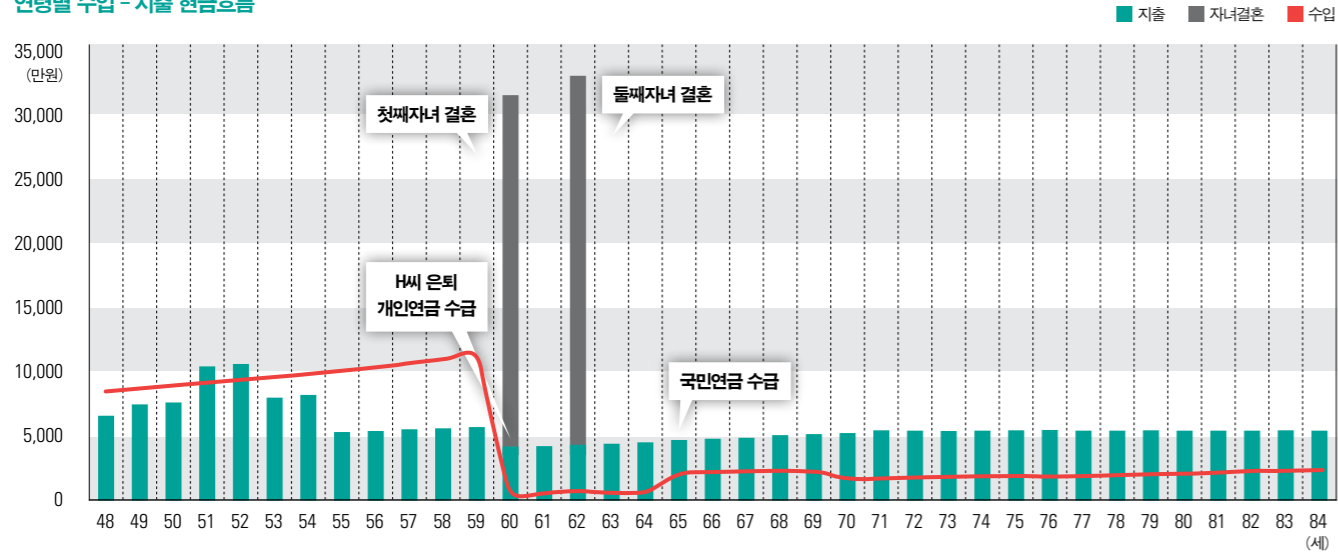
### 노후 생활비로 월 300만원을 원하는 상황

H씨는 은퇴시기를 60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85세까지의 미래설계를 원한다. 현재 H씨는 생활비로 248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위해 약 3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H씨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65세부터 매월 약 8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에 대해 사전 정산이 이뤄졌으며, 향후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수령 계획은 없다. 개인연금의 경우 은퇴 직후인 60세부터 69세까지 10년 간 매월 50만원씩 수령할 예정이다.

H씨의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sup>1)</sup>을 살펴보면, 은퇴 전 두 자녀가 모두 대학을 진학하는 시기인 51~52세에 자금 부족이 발생하며, 이후 자녀들이 대학을 차례로 졸업하기 시작함에 따라 은퇴 직전인 59세까지는 지속적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한다. 다만 그 이후 지출에 비해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더라도 노후 필요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두 자녀의 결혼비용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까지도 노후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1) 물가상승률은 2.5%를 가정하고 수입은 근로소득과 연금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포함. 자산부채 현황에서 불필요한 이자 납입 방지를 위해 신용대출을 예/적금 또는 펀드로 상환하는 것을 가정.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하여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연령별 수입 - 지출 현금흐름



금융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되

미래 지출액 조정, 주택연금 활용 등도 수반될 필요

H씨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 자산이 62.9%, 금융 자산이 37.1%로 부동산 자산이 더 많지만 크게 편중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또한 금융자산의 규모가 약 2억 7,700만원이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후 준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상황대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자녀 상속을 위해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금융자산 수익률은 7.25%이다. 즉, 현재 H씨가 계획하고 있는 자금 지출이 그대로 이뤄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향후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금융자산을 7.25% 수익률로 운용해야만 가능하다. 현재 7.25%의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추구형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 운용으로는 현재의 나이를 고려할 때 다소 위험 부담이 큰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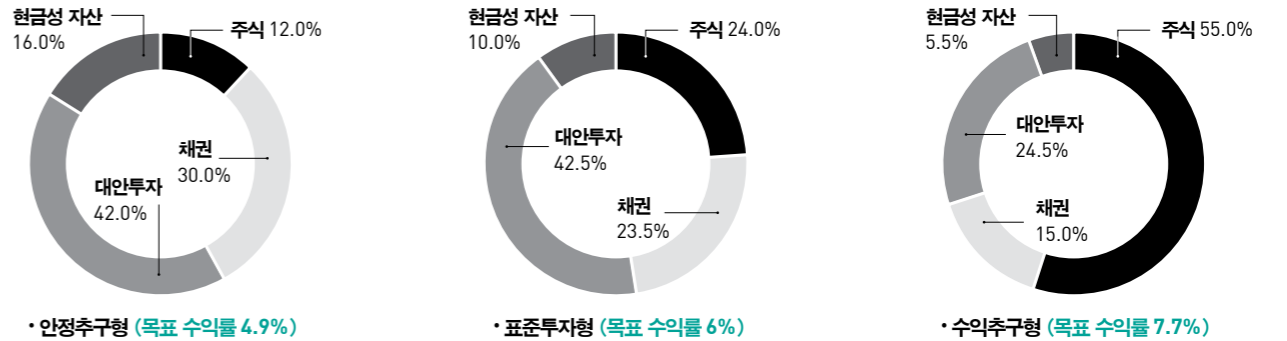
다소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요구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녀 결혼비용, 교육비용, 노후 생활비 등을 일부 감액하는 방안, 주택연금 활용 등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첫 번째로 노후 생활비를 현 수준인 250만원으로 낮춰보면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금융자산을 6.25%의 수익률로 운용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표준투자형 포트폴리오

로 운용할 수 있어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후 생활비를 줄이는 대신 자녀 미래 교육비와 결혼비용을 각각 절반 수준인 5,000만원(1인당), 1억원(1인당)으로 낮출 경우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금융자산을 4.16%의 수익률로 운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금융자산을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해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투자 유형인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 있다. 투자 목적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임을 감안할 때 안정추구형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투자 형태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자금 지출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연금의 경우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본인 및 배우자 사망 후 정산 과정에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을 경우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씨의 경우 4억 7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면 60세부터 매월 105만 원씩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연금을 활용할 경우 부동산 자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것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자녀 상속여부에 따라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다소 변할 수 있다. 우선 주택연금을 활용해 노후 생활비 일부를 충당할 경우 기존 금융자산을 5.91%의 수익률로 운용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며, 만약 자녀들에게 2억원 정도를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6.54%로 다소 상승하게 된다.

위의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연금 등 노후 준비가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녀 결혼비용 등 미래 지출 분을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교육비나 결혼비용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노후 준비의 성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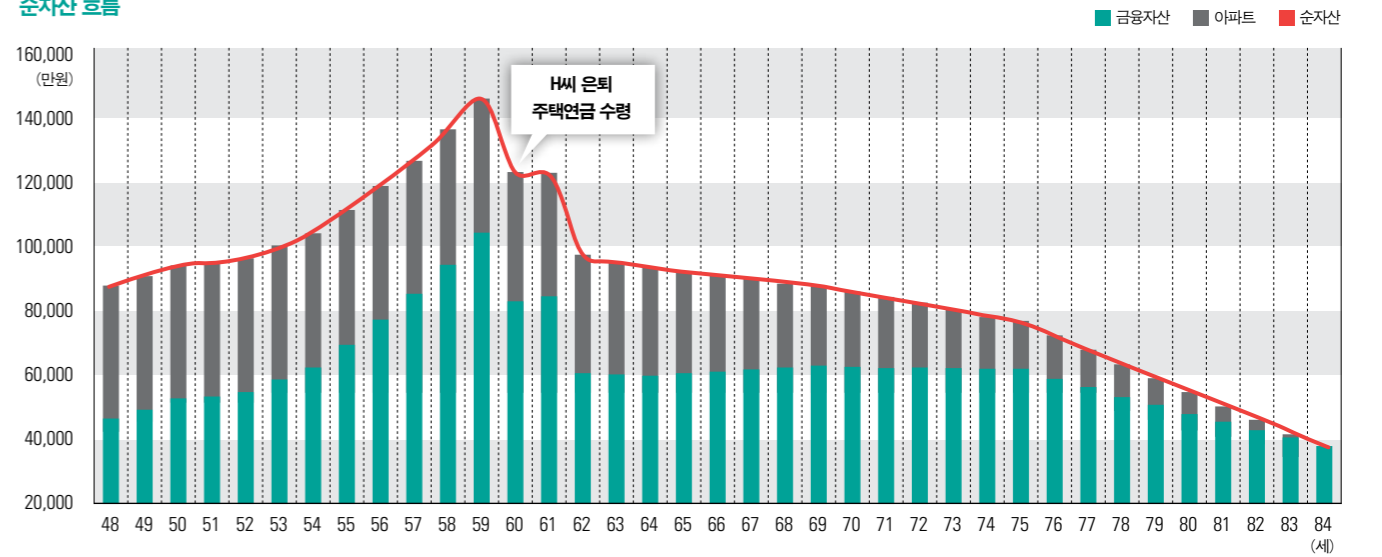
\* 주 :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분기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제시 \* 자료 : 하나금융투자, '머니TALK', 2015.10

원활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연금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

H씨는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적절한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노후 준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별도의 퇴직연금이 없다는 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생활비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이뤄졌다고 보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존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해 안정

적인 운용을 하되 미래 지출분에 대한 절감 또는 주택연금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H씨의 사례를 볼 때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급이 가능한 연금 형태의 자산마련이 필요하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독자들도 이를 염두에 뒀어야 할 것이다.

순자산 흐름



2) 위 순자산 흐름도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며 자녀들에게 2억원을 상속해주는 것을 가정한 것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주식을 소유한 이들은 울상이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증여세를 줄여 상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산가치의 하락기에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지 알아보자.

최적의 절세 타이밍을 잡아라

# 자산가치 하락기, 증여에는 골든타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한 입장에서 주가 하락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의 평가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낮게 평가된 주식이나 펀드, 채권을 자녀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낮은 평가금액으로 인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향후에 수익률이 회복되었을 때 그 과실이 증여받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자산이전의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금융상품별로 세법상 평가방법을 살펴보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보자.

## 펀드, ELS 등 간접투자 상품은 증여일 현재 기준 가격으로 평가

증여재산이 펀드, ELS(주기연계증권)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 상품인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 또는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 가격으로 평가한다. 만약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손실이 났는데 증여하는 경우, 나중에 주가가 회복되더라도 수익은 증여받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투자한 ELS가 60% 손실이 발생하여 평가금액이 2,0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10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따로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받은 ELS가 만기 때 주가가 회복되어 20% 수익이 나게 되면 6,000만원을 자녀가 상환받게 되어도 추가적인 증세 부담은 없게 된다.

손실이 발생한 간접투자 상품의 경우 증여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수익은 온전히 자녀나 배우자의 몫이 되며, 증가한 금액만큼 자금출처로도 활용할 수 있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어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일 당시의 평가금액이 된다.

## 상장주식은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

주가가 하락하는 주가 조정기에는 어김없이 최대주주 일가의 증여가 있었다는 내용이 공시로 발표된다. 주가가 낮을 때를 이용해서 지분을 확대하고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증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증여취소가 가능하므로, 계속 주가가 하락하면 증여취소 후에 다시 증여시기를 모색할 수 있다.

## 국·공채 등 채권은 최종시세가액과 증여 전 2개월간 평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국채, 공채, 회사채 등 채권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채권에 해당된다. 증여일 이전 2개월간의 유기증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증여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장되어 있지 않거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외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 국채의 평가방법도 위의 방법을 준용<sup>1)</sup>한다.

-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 :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 ② 그 외의 국채 등 :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 금융상품의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이 쉽게 확인되며, 취득세 등의 부담이 없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라고 하면 부동산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금융상품의 경우 증여의 장점이 의외로 많다. 먼저 금융상품은 부동산에 비해 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증여 시 재산평가로 과세당국과 분쟁이 생길 여지도 적다는 의미이다. 또한 부동산과는 달리 증여를 실행할 때 취득세의 부담이 없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보자.

주1) 상속증여세과-25(2014.02.06)

# 연금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는 종신보험

최근 국내 고령화 심화와 더불어 가입자가 생전에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연금전환형)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종신보험은 기존의 종신보험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생전에 종신보험을 유지하면서 가입기간 중 의료비, 생활비 등을 연금형태로 미리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다. 이들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에게 노후 안정적인 소득을 장기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브리드 종신보험은 통상적으로 종신보험을 주계약으로 하고, 거기에 생활비나 의료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부가되는 형태로 이뤄진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하나생명의 '무배당 행복한 생애설계종신보험', 교보생명의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 뉴 종신보험' 등이 있다. 하이브리드 종신보험의 가입 시 가능한 나이는 대부분 15세에서 60~65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비나 생활비 등을 연금형태로 전환해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각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45~60세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비나 생활비 등의 연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50~100%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기간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정기간이나 횟수로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간의 경우는 최소 10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처럼 생활비 등의 형태로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는 당연히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미리 지급받은 만큼 차감되어 받게 된다.

따라서 노후를 준비하거나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노후 안정적인 소득창출이 어렵다면 연금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나, 기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특약 이용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하이브리드 종신보험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보험사마다 연금전환 옵션, 가입가능 연령, 연금전환 가능기간, 연금 지급한도 및 수령기간, 연금전환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제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의 노후설계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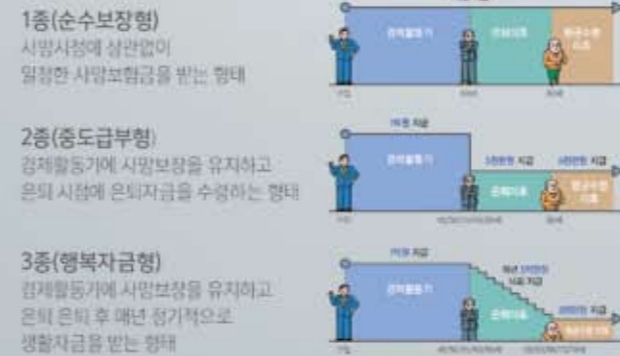
### 순수 종신보험 VS. 하이브리드 종신보험

구분	순수 종신보험	하이브리드 종신보험
내용	전통적 개념의 종신보험으로 가입자가 사망할 시 사망보장금을 지급 받음	종신보험 기능 외에 치료비, 연금형태의 노후 생활비까지 지급 받는 종신보험
사망보험	지급	지급하나 연금지급만큼 차감
연금지급	미지급	지급
연금전환 및 수령기간	불가능	통상 45세에서 60세에 전환하여 10년 이상 연금 수령
상품도입 시기	1990년대	2015년

#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생활자금 활용하세요.

무배당 행복한생애설계종신보험 Search

###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종신보험 선택 가능



### 사망보험금은 최대 10억까지 가능



### 자금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연금전환 가능

(단, 10년 이상 유지 및 만 45세 이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080-3488-7000

# 하루면 충분! 클래스가 다른 One '원데이 클래스' class

**‘원포인트 레슨’은 들어 봤어도 ‘원데이 클래스’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 그대로 단 하루면 끝나는 클래스가 바로 원데이 클래스다. 새로운 취미를 갖고 싶지만 동호회는 왠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본격적인 강의를 듣자니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원데이 클래스에 문을 두드려보자.**

자신이 하던 분야와 전혀 다른 것을 배우면 색다른 즐거움과 쾌감이 느껴진다. 스스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 느낌도 든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은 지친 일상에 쉼표와 같은 힐링 타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그 부담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

원데이 클래스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색다른 배움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말 그대로 ‘발만 살짝 담그는’ 정도의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 초보자도 무난하게 할 수 있다.

최근 원데이 클래스가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에 ‘원데이 클래스’만 검색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요리나 베이킹, 플라워에서부터 자수, 천연 비누, 방향제, 사진, 맥주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도 있다. ‘클래스 원데이(www.classoneday.com)’에서는 홈, 라이프스타일, 공예, 푸드, 미술, 스토어 등 다양한 분야의 원데이 클래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시간도 돈도 아깝다면 책을 통해 원데이 클래스를 배워볼 수 있다. ‘어떤 날에 원데이 클래스’는 총 74가지의 다양한 스타일링과 DIY가 수록되어 있다.

##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



### • 카메라와 사진 클래스

감성사진 구도와 쉬운 M수동모드 매뉴얼모드 사용법, 그리고 포토샵 보정까지 사진과 카메라에 대한 클래스  
수강정원: 3명 / 수강시간: 약 3시간  
장소: 카페무이 계동점\_서울시 종로구 계동 10-1



### • 수제 맥주 만들기 클래스

기호에 따라 원하는 맥주를 직접 만드는 수제 맥주 클래스.  
수강정원: 10명 / 수강시간: 2시간  
장소: 굿비어 공방\_서울시 이태원동 455-10 1층



### • 감성 수채화 클래스

여러 가지 수채화 기법을 배우고 액자와 엽서를 완성하는 클래스.  
수강정원: 4명 / 수강시간: 3시간  
장소: 강남구 역삼동 683번지 현빌딩 202호



### • 가죽 태슬 제작 클래스

Italian Calf Skin으로 만드는 태슬 가죽 공예 클래스  
수강정원: 6명 / 수강시간: 2시간  
장소: 서울 중구 명동길 14 눈스퀘어 5층 34호



### • 클래식 치즈케이크 베이킹 클래스

쫄득하고 깊은 맛의 클래식 치즈케익 베이킹 클래스  
수강정원: 3명 / 수강시간: 약 2시간  
장소: 스위트에펠\_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2-47 2층

※ 출처: 클래스 원데이(www.classoneday.com)

전문 강좌에 비하면 원데이 클래스가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회당 5~10만 원은 투자해야 하니 호기심 가는대로 배워보려면 그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한 번쯤 배워보고 싶었지만 바쁜 스케줄 탓에 매번 다음으로 미뤘다면, 궁금했지만 배울 곳을 찾지 못했다면, 손재주가 없어 매번 포기했다면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주변의 소소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상의 의미와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10년 더 젊어지는 바른 자세

꼳꼳한 자세로 젊어지자. 구부정한 어깨, 거북이처럼 쪽 뻗 목, 삐딱한 허리 등 잘못된 자세는 노화의 지름길. 하지만 심각한 자각증세가 없는 이상 현대인들은 바른 자세에 무관심하다. 건강한 신체에 아름다운 몸매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바른 자세 만들기.

걸음걸이, 체형, 뒷태를 보면 어렵듯이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척추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어깨와 허리는 힘이 주저앉는다. 최근에는 노화뿐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로 인한 불량 자세로 통증을 호소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나쁜 자세가 오래 유지될 경우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자세가 좋지 않으면 척추와 골반 관절에 붙어있는 근육이 꼬이고, 순환이 안 되므로 전신에 군살과 노폐물이 쌓이게 된다. 이는 전신의 피로감과 통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체내 독소가 쌓여 살찌기 좋은 체질로 변화시킨다. 또한 목덜미, 등, 복부,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군살이 집중된다.

또 척추 측만증, 전만증, 후만증, 거북목, 디스크, 척추분리증, 근 위축, 소화불량, 두통, 만성피로와 같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잘못된 자세 습관은 척추와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의 자생력을 망가뜨리는데, 이렇게 몸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며 “어깨가 기울면 척추와 골반까지 틀어지고, 반대로 골반이 틀어질 경우 척추를 거쳐 어깨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온몸의 균형이 흐트러진다”고 지적한다.

## 자세 교정엔 걷기가 효과적

척추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전문가들은 ‘걷기’를 추천한다. 걷기는 척추 관절은 보호하면서 척추 근육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단,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유지해야 척추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걷기 방법으로 평지를 빨리 걷거나 낮은 산을 천천히 걷는 것이 좋다. 때론 걷는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앞과 뒤 방향을 전환하거나, 박수를 치며 걷는 등의 걷기 방법은 지루함을 덜고 척추 건강 외에 다른 운동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어 좋다. 이밖에도 척추 교정, 자세 교정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CHECK POINT

**셀프 테스트 동작이 매끄럽지 않다면 평소 나쁜 자세가 습관화 되었음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자유롭게 양옆으로 머리를 돌릴 수 있는가?
- 고개를 뒤로 젖히지 않고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가?
-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을 머리 위로 뻗어 올릴 수 있는가?
- 발뒤꿈치가 들리지 않고 쪼그려 앉을 수 있는가?

## 바른 자세 유지하는 방법

01. 평소 생활에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줄인다.
02. 고개를 많이 숙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혀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준다. (예를 들면, 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전, 우, 좌, 우로 스트레칭, 어깨를 위로 으쓱 으쓱 올리면서 돌려주는 동작만 1시간에 한 번씩만 해줘도 어깨와 목이 경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03. 같은 자세나 동작을 장시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몸을 수시로 풀어주고 틈틈이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04. 운동, 육체 노동의 경우 지나치게 몸을 혹사시키지 않도록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한다.
05. 자세를 바르게 세워주는 허리근육, 복근 등을 평소 튼튼하게 관리하는 운동을 병행한다.
06.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잠잘 때, 걸어 다닐 때, 각각의 경우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걸을 때 : 허리, 가슴, 목, 머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서 있을 때 : 오랜 시간 서 있을 때는 한쪽 발을 앞으로 자연스럽게 내밀고 서 있는 것이 척추에 부담을 덜 준다. 또는 한쪽 다리를 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바닥에 앉아 있을 때 : 쿠션이나 베개로 등을 받치고 벽에 바짝 기대어 앉는다.
  - 컴퓨터 작업 할 때 : 의자를 책상 가까이에 놓고 상체를 똑바로 세운다.
  - 앉아서 휴식을 취할 때 : 의자는 허리와 목 부분 두 곳이 볼록하게 되어 척추의 정상 곡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 운전할 때 : 등, 허리,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여 앉는다.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은 자세가 좋다.
  - 누워 있을 때 : 무릎 밑에 베개나 쿠션을 놓고 똑바로 눕는다. 베개는 목이 5~10도 정도 들릴 정도의 높이가 알맞다.

참고도서 : 바른자세와 운동 / 이상호, 미셀리, 우리들병원 척추연구팀 / 우리들척추건강



# 이웃과 잘 지내는 법



마음 맞는 이웃과 감정을 공유하고 살아간다면 삶은 더욱 풍성해진다.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화단을 가꾸며 마음을 터놓기도 하고, 아예 건축 설계에서부터 공동으로 주택을 지어 삶을 나누기도 한다. 시대에 맞춰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이웃과 공존(共存)하는 법.

이웃사촌이라는 정감어린 단어가 당연하던 시대엔 이웃끼리 서로 마당과 마당을 넘나들며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눴다. 하지만 지금의 이웃사촌 문화는 삭막하기만 하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조차 없다. 어쩌면 힘겨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느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다면 삶은 더 각박해질 수밖에 없다

인문학자 박홍순은 '미술관 옆 인문학'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삶의 고단함은 인간에게서 서로에 대한 따뜻한 시선마저 앗아가 버린다. 매일의 삶이 고된 노동의 연속일 때, 그리하여 피부와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피로가 축적되어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삶에 관심이나 애정을 갖기 힘들다. 하루를 수동적으로 힘겹게 밀어내는 느낌일 때는 타인의 시선조차 무겁게 느껴진다.”



## 공동 정원, 공동 주택으로 이웃과 소통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트렌드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는 주민이 함께 모여 야생화 동산을 만들었다. 꽃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 꽃과 풀을 심어 가꾼 공간을 만든 것. 함께 화단을 관리하던 주민들이 아파트 한 쪽 공터에 지원을 받아 꽃을 심기 시작하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고, 참여하는 주민도 처음 3명에서 현재 70여명으로 늘어났다. 공동으로 정원을 가꾸다보니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이 마련됐고, 이런 저런 대화 속에서 주민들 사이는 더 가까워졌다. 이곳 사람들은 공동 정원을 '부녀회장남'이라고 부른다. 주민을 모으고 친목을 다지는 부녀회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세어하우스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조명 받고 있다. 소셜 벤처 기업 '프로젝트 옥'에서 운영하는 세어하우스 '우주'는 2012년 2월 종로구 권농동의 한옥을 개조해 만든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지점이 있다. 요리, 미술, 영화 등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모여 함께 생활한다. 관심사가 통하다 보니 삶의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나누며 새로운 이웃사촌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다. 두레 주택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세어하우스 형태의 공공 임대 주택이다. 1인 가구에서 3인 가구까지 가능하다.

협동조합 주택을 의미하는 '코퍼러티브(Corporative)' 하우스는 건축주들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고, 건설부지의 취득이나 설계단계부터 스스로 결정하면서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주택을 말한다. 특히 북유럽, 북미 지역에 비교적 널리 보급되어 있는 주거방식이다. 코퍼러티브 하우스는 실제로 입주하게 될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협의를 통해 모든 단계를 진행한다. 덕분에 입주 전부터 이웃 간 연대 관계가 형성되고 여러 연령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문화에서 이웃과 함께 새로운 기회와 삶의 행복을 찾아 나가고 있다.



### TIP. 이웃과 잘 지내면 심장도 튼튼.

좋은 이웃과 만나거나 이웃과 잘 지내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눈길을 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은 미국의 '건강과 은퇴 연구'에 참여한 심장 병력이 없는 50대 이상 성인 5,27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마음이 맞는 이웃을 만나서 그들과 감정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것을 밝혀냈다. 4년 간 이뤄진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에게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있는지, 이웃을 믿는지,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지 등의 질문을 했고, 그 결과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하거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를 겪을 확률이 67%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준비 상황과 시사점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사회 주역들이 한꺼번에 퇴장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의 현주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조명해보자.

최근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매체에서 노후준비의 중요성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보도됨에 따라 은퇴준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동 세대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에서 서서히 은퇴해 가는 데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더욱 조명되고 집중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6·25 전쟁 이후인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현재 약 743만명(전체의 약 14.5%)에 이르고 있다. 1955생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201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어 2020년까지 베이비부머 대부분의 인구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 경제성장 등을 이끌어 온 사회 주역들이 한꺼번에 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준비는 개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은퇴 시기가 가까워올수록 은퇴 이후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다양한 차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베이비부머 세대, 평균 자산 3억 4,000만원 중 부동산이 81.9%로 대부분을 차지

최근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sup>1)</sup>에 따르면, 국내 베이비부머의 평균 자산은 3억 4,236만원으로 이 중 81.9%가 부동산이며, 금융자산은 전체의 14.8%인 5,0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상황이다 보니 은퇴를 앞두고 '집 한 채 빼고는 남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거주 주택 유형은 아파트(51%)가 가장 많고, 단독주택(37%), 연립/다세대(11%)의 순으로,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은 유사시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질병이나 기타 위급상황에 취약하고, 이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부동산 가격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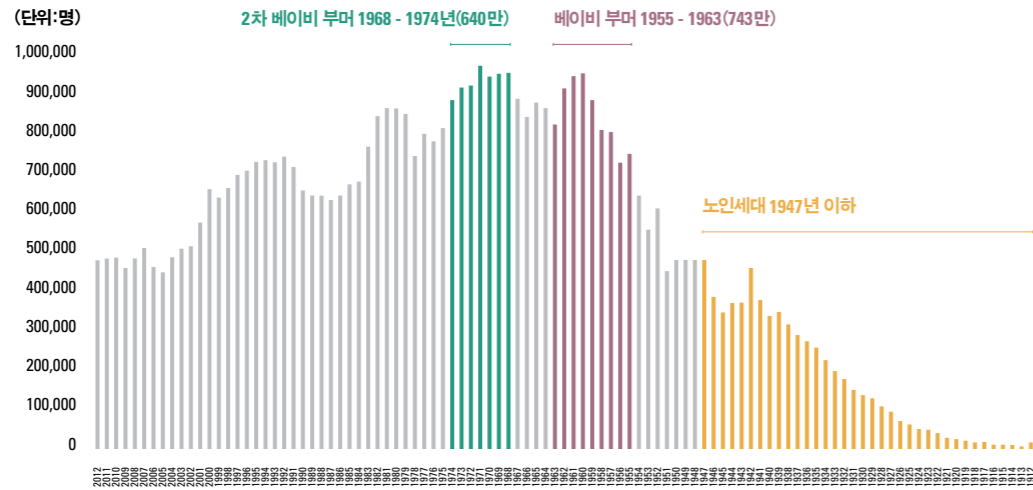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 절반 이상인 58.2%가 예금과 적금으로 이뤄져 있고, 연금상품 18.0%(국민연금 제외), 저축성 보험 11.8%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금융자산 구성으로는 이를 활용한 추가 금융소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금융자산이 부족하다면 생활 적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제3차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1955년~1963년 출생한 4048명 대상으로 2010년부터 2년 마다 추적 연구



베이비부머의 규모



자료 : 인건행정부

근로소득을 통한 소득 창출력은 낮아지는 가운데, 부모 봉양과 자녀 지원 부담 여전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간 가계 총 소득<sup>2)</sup>은 5,16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항목별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33.7%, 31.5%로 일을 통한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기반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인 5,163만원(2014년)과 거의 비슷한 규모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71만원으로 2010년 255만원에서 증가했으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을 계산해보면 249만원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해 은퇴 또는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근로소득을 통한 소득 창출력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평균 생활비는 259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출 내역 중 자녀 교육비가 전체 지출의 33.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녀교육비 비중이 13.6%인 점을 감안하면 베이비부머는 자녀 교육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해 살고 있는 성인 자녀가 있는 비율이 지난 2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성인 자녀들이 완벽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않고 있어,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자녀 지원의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부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베이비부머 비율은 전체의 약 절반인 48.8%로 과거 조사 대비 감소했으나 부모를 간병하고 있는 비율은 12.5%로 오히려 증가해 노령 부모 부양의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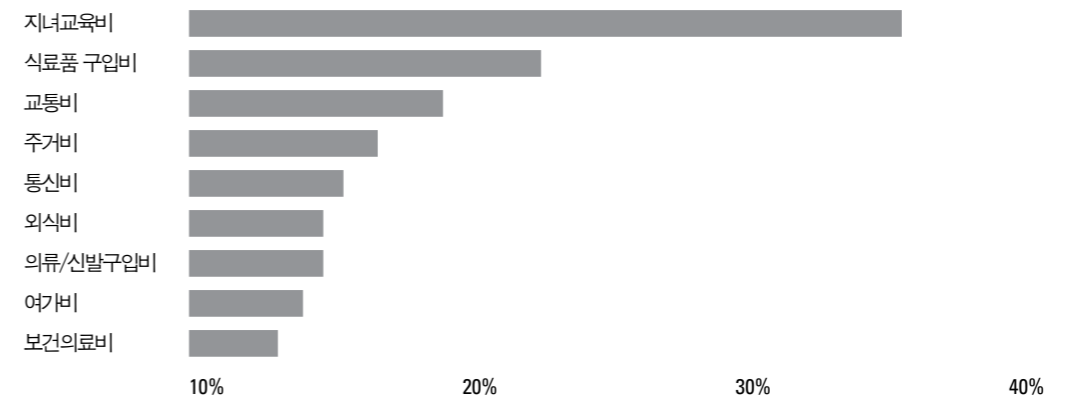
2)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제3차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1955년~1963년 출생한 4048명 대상으로 2010년부터 2년 마다 추적 연구

대다수 베이비부머들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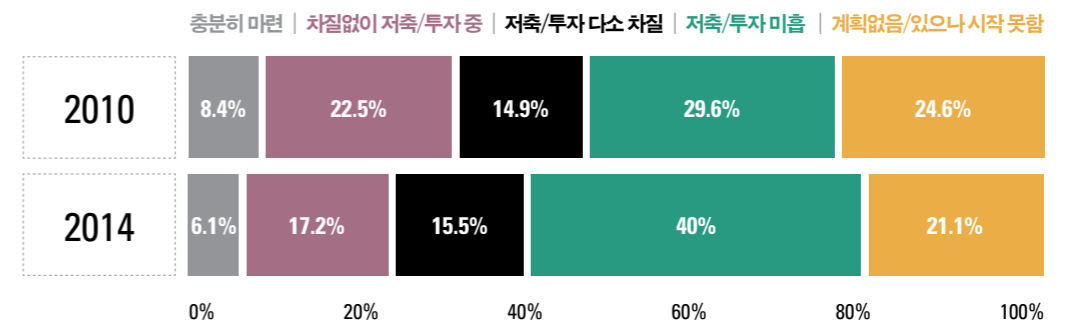
서울시에서 진행된 조사<sup>3)</sup>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후 대비 준비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음'의 응답자 비율이 78.4%로 대다수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가운데,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자산 규모가 클수록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가 가까워올수록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노후준비 상태에 대한 자신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2010년과 2014년,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은퇴자금 준비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충분히 마련되었다', '차질 없이 저축·투자 중'이라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4년 전 대비 하락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준비에 대한 자신감은 많이 하락했다.

베이비부머의 가구 소비 비중



은퇴자금 준비정도에 대한 응답



자료 :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

3) 서울연구원, "서울시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특성과 정책방향"

일본 베이비부머 세대는 축적한 자산 규모가 크고, 금융자산 보유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여유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도 10여 년 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차 대전 직후인 1947년~1949년이 베이비부머 시기였으며, 이 때 태어난 세대를 '단카이 세대'라고 부른다. 단카이 세대는 약 680만 명에 달하며 2007년부터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은퇴가 시작되는 60대부터 연간 소득은 감소하기 시작하나, 다만 실물 및 금융 자산을 포함한 보유자산 규모는 60~70대 노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와 차이점은 보유자산 구성에 있다. 일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60대의 총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50% 후반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0년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경험한 이후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자산의 리스크가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주로 안전자산 위주의 금융자산 보유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내 베이비부머 세대도 은퇴 이후 성공적인 노후를 맞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필요

국내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보유 자산이 적지 않아 가난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어 현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부모 봉양의 역할과 자녀 양육(지원)의 부담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축적한 자산이 은퇴 후 본인만을 위해 사용될 자산이 아니라 향후 다각도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소위 '끼인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이유이다.

최근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생활 유형으로 취미생활 41.6%, 소득창출 19.0%, 자원봉사 17.0%, 종교활동 9.4%, 자기계발 7.2%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인이 원하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유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존 집을 다운사이징 하거나 또는 은퇴 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통해 원활한 현금흐름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 또한 퇴직 후에도 최소 20년 이상의 소비기간이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재무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일 것이다. 과거 경제 성장의 불을 이끌어온 세대가 집단 은퇴 이후 맞닥뜨리게 될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필요하다.

#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생각, 하나멤버스

하나멤버스와 함께하면 당신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가입하면 혜택이 쏟아지는 행복한 멤버십과 만나보세요.



**HANA MEMBERS 하나멤버스**

하나금융그룹 6개 관계사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 저축부터 보험 가입, 카드 사용,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거래를 통해 쌓인 하나머니와 제휴사 포인트를 합산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금융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멤버스 회원이 되어 다양한 일상 속 행복을 누리보세요.

**하나머니란?**

연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하나멤버스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입니다. 하나멤버스 가입 고객은 누구나 하나금융그룹금융 거래 및 일반 가맹점에서 하나머니를 적립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적립해 편리하게 사용한다!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하나머니**

- 현금처럼 ATM출금도 자유롭게!
- 내 계좌로 입금도 안전하게!
- '보내요'와 '주세요'로 친구와 주고받기도 다정하게!
- 가맹점에서 바코드 결제로 간편하게!
- 부족하면 내 계좌에서 충전도 빠르게!
- 다른 포인트와 교환하여 한꺼번에!
- 교통카드 충전도 손쉽게!



**Hana Money 1 Click**

**여디서든** (어디서 써야 하는지 몰라도)  
**그냥 결제만 하고** (하나머니를 사용한다는 말 없이)  
Cashier가 일반 결제 처리만 하면 하나멤버스 앱이 Push로 알려주니까 '사용하기'만 클릭하면 하나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Push 팝업에서 하나머니 '사용하기' 클릭!

\* 하나머니 잔액 천원 이상 & 매출금액의 20%까지 하나머니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고 빠르게 하나멤버스에 가입하세요**

모바일 [하나멤버스] 앱 다운로드 (step 1)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가입 (step 2) > 하나멤버스 회원 가입 완료! (step 3)

www.hanamembership.com

하나멤버스 를 검색해 보세요

Google play | App Store

[주]KKB하나은행 준비금사민 심사일 2015-광고-3078호(2015.09.24)

# 구조적 및 순환적 요인으로 살펴본 2016년 한국경제

올해 글로벌 경제는 선진국 경기회복과 신흥국 경기둔화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완전한 회복세에 비해 중국의 경기둔화와 원자재 가격 약세로

신흥국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내수 부진,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내년에도 한국경제는 2%대 중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한국경제를 전망해 본다.

## 올해 글로벌 경제는

### 선진국 경기회복-신흥국 경기둔화의 흐름이 강화

올해 글로벌 경제의 특징은 선진국 경기회복-신흥국 경기둔화의 흐름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4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이슈가 잠시 부각되기도 했지만, 선진국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나갔다. 미국 경제는 1분기에 흑화와 폭설 등 예상치 못한 악재로 잠시 성장이 주춤하기도 했지만, 2분기 이후 건실한 재무구조·고용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개인소비가 개선되고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완전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유로존도 ECB의 양적완화 정책과 유로화 약세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개선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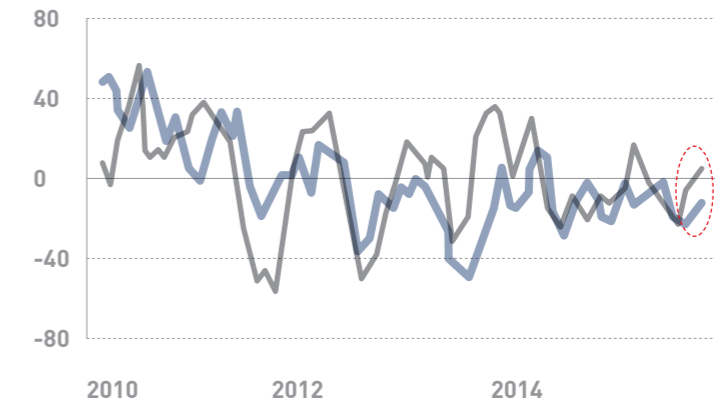
반면 신흥국은 중국의 경기둔화와 원자재 가격 약세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은 생산, 투자, 소비의 동반 둔화 속에 7%대 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주식시장 버블붕괴 중에 나타난 대응능력 부재로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도 약화되었다. 러시아와 브라질은 원자재 가격 약세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인도만이 모디 총리의 취임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올해 한국경제의 특징은 내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한국경제를 견인했던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과 저금리 지속으로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분기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중국의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투자심리도 회복되지 못하면서 내수의 부진이 계속되었다. 특히 올해 한국경제를 어렵게 한 것은 수출의 부진이다. 중국 경기둔화와 수입구조 변화, 엔화기치 급락, 휴대폰·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 원자재 가격 급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이 연중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는 2013년(2.3%) 이후 2년 만에 다시 2%대 성장률에 그칠 전망이다.

선진국 및 신흥국

Economic Surprise Index

— 선진국  
— 신흥국



자료 : 블룸버그

## 단기적인 수치로만 일회일비 하기에

###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장기흐름이 심상치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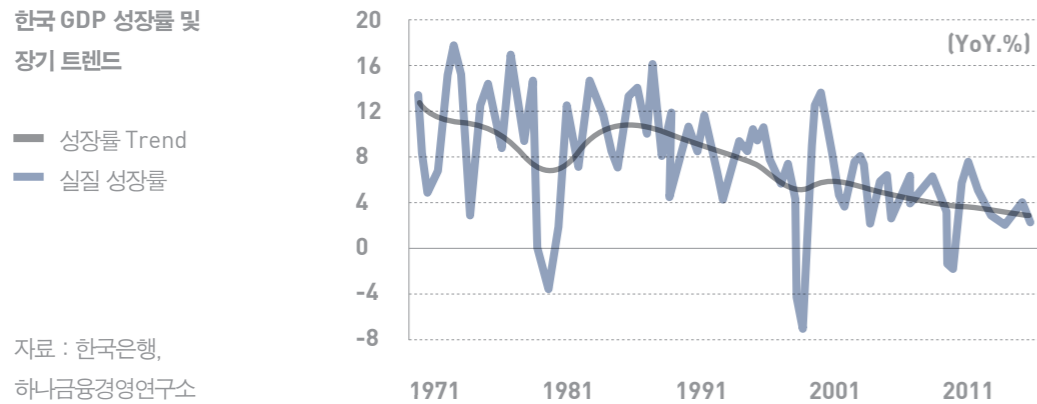
현재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한국경제가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2년 연속 2%대에 머무러갈지 여부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내년도 한국경제가 3%대를 회복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반면, 민간 연구소들은 3%대 성장률 회복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ں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부터 분기별 성장률이 0.7%(연율 2.8%)에 그치고 있다. 단기적인 성장률 수치로만 일회일비 하기에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장기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장기 트렌드와 순환적인 대내외 환경으로 구분해 내년도 한국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장기 트렌드는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대표적이다. 가계부채 부담과 빠른 인구 고령화 등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세계교역 둔화와 제조업 과잉설비 등으로 투자성향이 악화되면서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총수요와 투자부진으로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흑자를 기록하게 되며 저성장·저물가 상황은 경제 전체의 기대수익률인 금리를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저성장·저물가·저금리·경상수지 흑자라는 거대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내년도 한국경제가 직면할 대외 환경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美)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및 자금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기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의 악발이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일본이 추가 양적완화 조

치에 나서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스 및 영국 등의 유로존 탈퇴 이슈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이다.

반면 미국과 유로존 경기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수입수요가 증가할 경우 한국의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약세도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물론 원자재 가격 약세로 원자재 수출국가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의 개선과 실질구매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한국경제는 2%대 중반의 성장에 그칠 전망.**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은 다운사이드 리스크**

이상과 같은 구조적인 장기 트렌드와 녹록치 않은 대외 환경을 감안할 때 내년도 한국경제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전망의 상향조정 가능성은 미국과 유로존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이 될 수 있으며, 중국 경기가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반대로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별로 볼 때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구조적인 장기 트렌드는 가계부채 확대와 이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증가, 빠른 고령화로 인한 저축증가 및 이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 등이다. 반면 내년도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환적 흐름으로는 올해 2분기 메르스 확산에 따른 충격의 소멸과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강화, 그리고 정책당국의 소비활성화 대책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즉 민간소비의 장기 트렌드는 부정적인 흐름이 계속될 전망이다. 순환적 변수는 올해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년도 민간소비의 경우 뚜렷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구조적인 장기 흐름은 석유화학·철강 등의 수익성 악화와 유희설비 부담, 기업의 보수적인 투자행태 및 해외투자 선호 등으로 인한 투자성향 하락이며, 순환적인 흐름은 일부산업의 교체수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산업의 투자부진 지속 등이 있을 수 있다. 즉 설비투자의 장기 트렌드는 부정적인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순환적 변수는 일부 산업의 교체수요 등 긍정적 요인과 에너지 산업의 투자부진 등 부정적 요인이 교차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 변수가 내년도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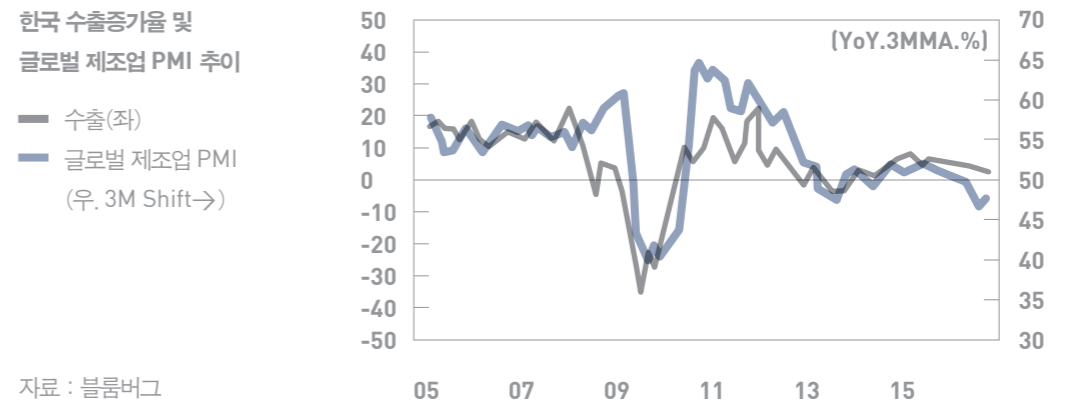
에 미칠 영향력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구조적인 장기 흐름은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주택수요의 둔화이다. 반면 주택경기 회복세와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매매전환 수요와 내년도 SOC 예산 감소로 인한 토목건설 부진 가능성 등은 순환적인 흐름이다. 이상의 움직임에 감안할 때 내년도 건설투자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출은 중국의 성장모형 전환과 경쟁통화의 약세로**

**내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수출에 대한 구조적인 장기 흐름은 중국의 성장모형 전환과 글로벌 교역량 둔화이다. 한편 내년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순환적인 요인으로는 미국과 유로존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 가능성, 그리고 선진국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요구조 변화 등으로 대(對)선진국 수출이 확대되기 어려운 점과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 둔화에 따른 대(對)신흥국 수출 부진 가능성, 엔화 및 위안화 등 경쟁통화의 약세 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흐름을 감안할 때 내년도 수출도 올해 못지않게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흐름은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이다. 또한 내년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순환적 요인은 올해 초 담배 값 인상효과 소멸과 국제유가 급락효과 완화,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 등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에 비해서는 높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1%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구조개혁과 총수요 진작의 투-트랙 전략으로**

**저성장·저물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경상수지 흑자라는 거대한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 채무조정으로 구조적인 장기 트렌드를 반전시키고 재정 및 통화확대 등 총수요 진작 정책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촉발할 수 있는 경기둔화 압력을 완충할 수 있는 투-트랙 (Two-Track)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 주거안정대책, 과연 효과는?

지난 9월 2일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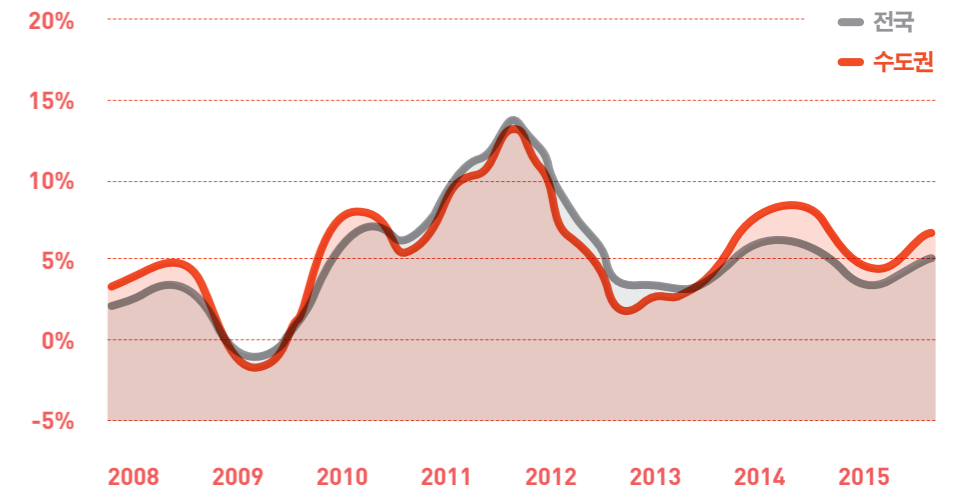
계속되는 전세공급 부족, 가속화 되는 월세 전환 현상 등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번 대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정부의 주거안정대책 내용과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압박에 대한 우려 속에, 정부 주거안정대책 발표

전국적으로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고, 주택매매가격 또한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이 일면 성공을 거둔 듯도 하다. 그러나 저금리 환경이 촉발한 주택임차시장의 구조 변화는 생각지 못한 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저금리로 인한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진행되면서 가계의 주거비 압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전세가격은 2009년 2월 이후 최근까지 66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절반을 넘나들고 있다. 시중 전세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내몰리면서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나 전세계약비중이 높았던 서울 아파트의 임대차 거래에서도 월세거래 비중은 30%를 넘어섰다. 정부는 가계의 주거비 증가가 민간소비 위축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서민·주거 층의 주거비용 완화를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는데, 바로 지난 9.2일 발표된 주거안정대책이다.

전국 및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YoY)

자료: KB국민은행



대학생,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그간 정부 대책과 차별화되는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에도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고, 1인 가구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 정부의 주거지원에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대학생 대상 전세 임대를 신설 또는 확대할 뿐 아



나라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LH공사의 매입임대사업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 집주인이 노후주택(10년 이상 경과)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할 경우 정부에서 개량자금을 저리(1.5%)에 지원하고, LH공사에서 시세 대비 낮은 수수료(7%)로 임대관리 위탁

뉴스테이 활성화를 통한 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 노력 병행

한편 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은 이제 막 시범사업에 접어든 뉴스테이사업을 중심으로 강화되었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표방하고 있는 뉴스테이사업은 주택도시기금 및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수도권 중심으로 10여 곳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1호 뉴스테이사업인 인천도화지구의 착공을 시작으로 연내 6,000호의 입주자 모집, 1만 4,000호의 영업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내년까지 총 2만호로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의 우선주 출자 허용, 주신보 출연료 면제 등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관계법령 및 하위법령을 정비해 뉴스테이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월세시장의 구조변화 탓에 전세난 잡기에는 역부족

이렇듯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국민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단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금리로 인한 전세의 월세 전환을 꼽을 수 있는데, 정부 정책 효과만으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조절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전세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마저도 주거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선화하면서 일반 가계의 주거안정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저금리 환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특유의 주택임대차제도인 전세제도가 사라져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 KEB하나 퇴직연금 개인형IRP

퇴직하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일시금과 DB 또는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간 중에 본인 부담으로 부담금을 개인명퇴직연금제도(IRP)에 납입하면, 과세이연 혜택과 함께 이를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명IRP 종류** ① 퇴직IRP(퇴직일시금을 받는 퇴직 근로자) ② 적립IRP(가입자 추가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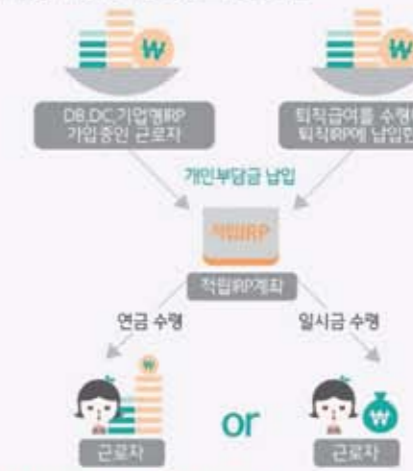
## 퇴직IRP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일시금으로 가입하는 개인명퇴직연금제도



## 적립IRP

DB, DC, IRP 가입 근로자가 자유롭게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개인명퇴직연금제도



※ 주의사항 : 일시금수령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과세됨

· 퇴직연금제도(DB, DC, 기업명IRP) 퇴직일시금 수령자  
· 퇴직금제도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	운용	지급
과세이연**	운용수익 과세이연	원천 과세, 연금소득세 과세

· 퇴직연금제도(DB, DC, 기업명IRP) 가입중인 근로자  
·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가입	운용	지급
가입금액연간 700만원 한도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운용수익 과세이연	기타소득세 or 연금소득세 과세

주1) 과세이연(세액이연) 요건 : 퇴직급여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퇴직IRP 가입시  
주2)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총합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퇴직급여 지급시 과세는 개정세법에 따라 적용됨 / 적립IRP 불입금액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연금저축, DC가입자 추가부담금 합산 기준임

## 개인명IRP 가입요과

- ① 세액이연 혜택 : 퇴직 후 퇴직IRP 해지 시까지 세액 납부 이연
- ② 세액공제 혜택 : 불입금액 (연간 700만원 한도) ×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2015년 이후분부터)가능  
\*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총합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DC근로자추가납입분 + 적립IRP납입분 + 연금저축 납입분 합산
- ③ 노후자금 확보 : 은퇴 시 노후자금 보전(이직 또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해 버리는 것을 방지)
- ④ 퇴직금전용 계좌 : 이직할 때마다 모이는 퇴직금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

## 개인명IRP 수수료율

- ① 퇴직자산부담금 : 운용관리수수료(1억 미만 : 연0.30% / 1억 이상 : 연0.27%), 자산관리 수수료(1억 미만 : 연0.20% / 1억 이상 : 연0.18%)
- ② 가입자부담금 : 운용관리수수료(연0.20%), 자산관리 수수료(1억 미만 : 연0.20% / 1억 이상 : 연0.18%)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최종 인출 시 세금은 원천별로 과세됩니다.  
※ 세액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015-광고-0551(2015.09.01~2016.08.31)/은행홍보141205-778(2015.09.01개정)

# 얼리어답터 영국의 시니어들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 제2리온드의 인생을 펼치고 있는 영국의 시니어.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영국 시니어 라이프를 만나보자.**

영국의 고령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영국 고용노동부 전망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영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대비 51% 증가, 85세 인구도 2030년까지 두 배 이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 시니어가 최신 기술의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상했다.

시니어들은 최신 기술에 대해 무관심하고 거부감을 보일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영국의 시니어들은 최신 정보기술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터넷 업체 플러스넷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령 인구의 3분의 2는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대답할 정도.

## 웨어러블기기 인기 급상승

특히 영국의 시니어들은 스마트폰 도입이 가장 빠른 얼리어답터들이다. 2010년까지만 해도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널리 보급됐으나, 2013년부터는 보유 연령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스마트폰 활용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10년에 45~74세 연령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30%에서 2013년에는 45%로 증가한 사실은 중장년층의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층은 3%에서 6%로 급증한 65~74세인 고령층이다.

최근에는 주요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스마트워치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가 영국 시니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웨어러블은 생체정보 처리를 통한 건강 기능이 있어 혈압, 맥박 등 각종 건강 신호를 상시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 많은 시니어들에게 활용도가 높다.

## 모빌리티 스쿠터로 외출

영국의 시니어들은 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가능한 한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쇠약한 고령자들도 도움을 받기 보다는 1인용 소형 전동차인 '모빌리티 스쿠터(Mobility scooter)'를 이용해 외출한다.

모빌리티 스쿠터란 수동식 휠체어를 포함, 1인용 좌석에 바퀴가 달려 구동하는 모든 탈 것을 지칭하지만, 관용적으로는 시니어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통하기도 한다.

모빌리티 스쿠터는 구동방식, 최고 속도 등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고령자용은 'Class 2 Boot Scooter'에 해당하며, 이 제품은 전체 시장의 약 45%를 차지하고, 소유자의 52%가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구매 목적이 노화로 인한 거동 불편일 경우 부가세(VAT: 현행 20%)가 면제된다. 또 실제로 장애인인 아니라도 건강문제 호소 시 관련 건강장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영국 국가보건제도(NHS) 덕분에 많은 시니어들이 이 제품의 구매비용을 NHS를 통해 무상처리하고 있다

## 캐서롤 클럽에서 음식 나눠

한편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영국에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자주 있는 영국의 특성 상 주변의 다른 시니어들을 위해 돌아가면서 서로 남은 요리를 나누는 캐서롤 클럽(Casserole Club)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음식 나눔 모임인 캐서롤 클럽은 남은 가정식을 어려운 이웃과 공유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젝트, 요리를 좋아하고 맛있는 가정식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스스로 요리하기 힘든 시니어를 연결하는 등 영국 시니어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Future

은퇴, 버킷리스트

글. 김지은 기자 kjeun1@naver.com



# 짜릿한 스릴! 스카이다이빙

## 블루 스카이(Blue Sky)!

하늘이 맑아야 비행을 할 수 있기에 스카이다이버들의 간절한 외침! 해발 3,000~4,000미터 상공에서 펼쳐지는 스릴 만점 도전, 스카이다이빙.

오로지 나를 넘어서서 도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모험이다.

공포감만 극복하면 스카이다이빙은 사실 어려운 스포츠는 아니다. 자세의 정확성, 침착함으로 도전한다면 하늘 위를 거뜰하게 날 수 있다. 다행히 지상에서의 교육으로 공포감도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미지 트레이닝과 반복적인 훈련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 공포심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스카이다이버들은 중독성 강한 매력의 스포츠로 스카이다이빙을 평가한다. 특히 아래로 낙하하긴 하지만 거의 무중력 상태처럼 떠 있기 때문에 큰 체력의 소모가 없어 외국에서는 평생 스포츠로 이름이 나 있다. 스카이다이빙 메카인 미국에서는 68세에서 85세로 꾸러진 실버팀도 있다. 한 달에 한두 번 계모임처럼 모여 비행을 즐길 정도다. 생존한 미국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인 부시 전 대통령은 스카이다이빙으로 아흔 번째 생일을 자축하기도 했다.

###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교육대상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350~400만원 수준이다.

### 교육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보통 일주일에서 늦어도 보름이면 된다. 교육기간 동안 평균 약 10회 정도의 점프를 하게 된다.

###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상에서의 교육을 시작으로 최초에는 교관 2명과 함께 점프, 단계가 높아지면서 최종 과정에서는 혼자서 점프한다.

###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대한낙하산학교, 서울스카이다이빙학교, 한국스카이다이빙아카데미 등이 있다.

Trustee & Global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행복한 은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은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은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 S&K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 TEL. 02-2002-2220 | FAX. 02-2002-2610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카드